

에너지신산업 혁신특구 유치 잔걸음

전남도 특구 조성 용역 착수 보고회
한전 등 에너지전문기관 참석
나주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기대

신특구 조성 기획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전남이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최적지인 논리 마련과 글로벌 수준에 맞는 실증·인증·표준을 지원하기 위한 유관기관 협력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전남도가 나주빛가람 혁신도시의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세계화·고도화하기 위해 정부의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특구'를 유치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 26일 나주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에서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전기설비시험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등 전문가와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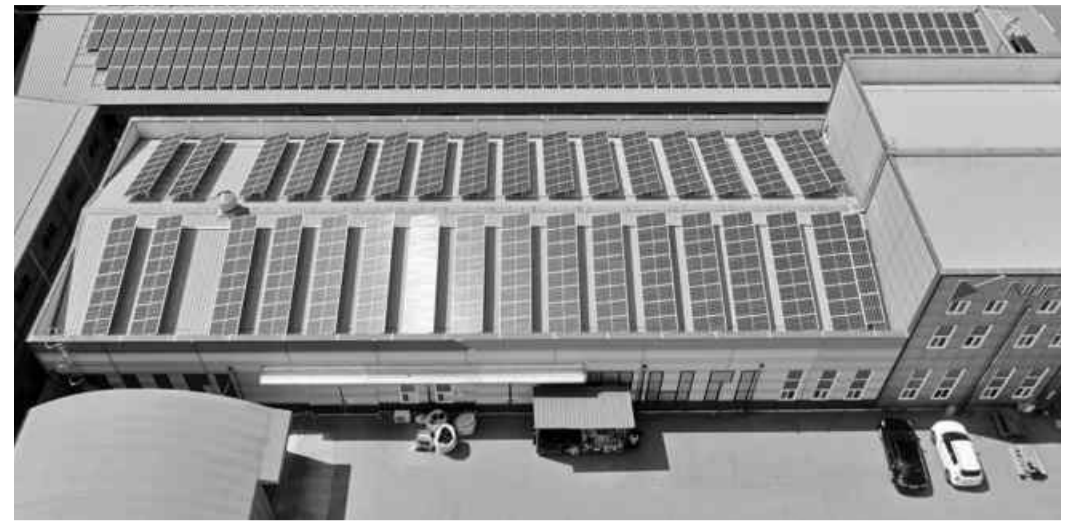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정부 국정과제로 권역별로 혁신기업의 지역 유치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와 규제 특례 지원 및 혁신거점 조성 등이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해 규제특구를 고도화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글로벌 특구에 적용할 규제, 국제적 수준의 기반시설, 인재 양성, 정주여건 등을 포함한 '글로벌 혁신특구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전남도는 나주 혁신산업단지를 중심으로 12.1km를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총사업비 339억원을 투자해 중앙직류(MVDC

)와 저압직류(LVDC)를 실증할 인프라를 갖추고 녹색에너지연구원과 한국전력, 도내 에너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중앙직류의 전송 용량 확대 등 규제특례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기획용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추진안을 중앙정부에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등 혁신특구 유치를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전력 등 에너지 유관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정섭 전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전남은 앵커기업인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에너지신산업 연구 인프라와 중소기업이 집적화된 클러스터를 잘 갖추고 있다"며 "지역이 보유한 에너지산업 자원을 활용하고 내실있는 기획용역을 통해 글로벌 혁신특구 유치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녹색에너지,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소 준공

누리플렉스 나주 공장 지붕에

급기업인 ㈜에담엔지니어링과 함께 공장 지붕에 100kW 규모의 자가용 태양광 설비를 구축했다. 연간 13만5432kwh 발전을 통해 공장 소비 전력 약 9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최근 녹색프리미엄 재생에너지 설치지원사업을 통해 SK텔레콤 협력사인 ㈜누리플렉스 나주 공장에 100kW급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했다.

<사진>

녹색프리미엄제도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소비하고 이를 인증받으려는 전기 소비자가 납부금액을 한국전력과 약정하고, 기존 요금 외에 별도의 프리미엄을 추가로 납부하는 새로운 요금제이다. 이 제도를 통해 전남은 물론 국토 남부권역(전라, 경상, 제주)에서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 시설을 완공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누리플렉스는 총괄관리 기관인 녹색에너지연구원과 재생에너지 설비 공

주동식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은 "이번 녹색프리미엄 기반 자가소비 태양광발전소 준공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K-RE100 관련 다양한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도정-도민 징검다리 충실”...전남도 민원메신저 역량 강화 워크숍



을 9월까지 불편사항 582건 개선

'전남도 민원 메신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 지난 23일까지 2일간 고흥 선별리조트에서 개최됐다. 전남도 민원 메신저는 도민 생활 속 불편사항을 파악해 개선점을 건의하며 전남도와 도민 간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1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워크숍은 메신저 간 소통과 팀워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을 들어 9월 현재까지 582건의 활동 실적을 보일만큼 이들은 전남도내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김병로 전남도 도민행복소통실장은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전남을 바꿀 일에 힘과 지혜를 모아 봉사하는 민원메신저의 열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인근 민원메신저 대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행사가 규제돼 정작 주민들과 소통의 역할을 담당하는 메신저들끼리 소통 기회도 부족해 안타까웠다"며 "생활 속 주민 불편사항뿐만 아니라 전남도의 역점시책과 현안을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개선 방안을 수렴해 도에 전달하는 등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청정전남 으뜸마을 우수사례 22개 시·군 공유

보성 문예술회관서 워크숍

전남도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2022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워크숍을 최근 보성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어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워크숍은 22개 시·군 공무원과 으뜸마을 대표 등 130여 명의 업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최근 열렸다.

김하생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장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의 의미와 방향성' 특강, 정은재 목포

과학대 교수의 '청정전남 으뜸마을 경관개선 및 사후관리' 사례발표, 곡성 권은주 마을공동체팀장의 곡성군 사업 추진현황 및 우수사례 발표, 보성군 손규호 행정계장의 사업 추진현황 및 우수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김하생 소장은 특강에서 생활 의제, 마을공동체 형성과정,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을 소개하고 주민 간 회의와 참여의 중요성 등을 설명했다. 특히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이 우리가 사는 마을의 환경 개선 등 자치활동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 자치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재 교수는 사례 발표에서 마을 경관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마을 이미지의 발전 방향을 설명했다. 외국 사례로 마을 경관 개선을 통해 마을 소득 사업과 연계하고 인구소멸을 막은 일본의 가바와 마을을 소개했다.

권은주 팀장은 우수사례 발표에서 지역활동가를 양성하고 찾아가는 으뜸마을 워크숍을 통해 사업을 주민자치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전남도는 10월까지 우수사례지를 평가한 후 11월 종합평가를 토대로 우수 6개 시·군과 50개 으뜸마을을 선정, 12월 시상과 함께 성과나눔대회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해양수산과학관, 살아있는 병어 전시

국내 최초...자체개발 순치기술 활용

전남도해양수산과학관이 국내 최초로 수족관에서 살아있는 병어류(덕대)를 전시한다. 병어류는 수성이 매우 예민해 포획 과정에서 쉽게 폐사하고 수족관에서도 며칠을 버티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선어 상태로는 쉽게 접할 수 있으나, 실제로 살아서 헤엄치는 건강한 병어류를 본 경우는 극히 드물다.

전시 중인 병어류는 돌산 소재 정치망 어업인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확보했고 해양수산과학관에

서 개발한 순치기술을 적용해 생존 관리 중이다. 해양수산과학관은 우리나라 근해에서 사라지는 명태를 비롯해 직접 종자를 생산한 연어, 남해산 토산 어류인 흑돔, 뽕바리 등 수족관에서 접하기 어려운 해양생물을 다양하게 전시하고 있다.

박준택 전남도해양수산과학관장은 "우리 연안에서 서식하지만 볼 기회가 없었던 어종을 전시해 교육적으로 활용하겠다"며 "살아있는 화석생물, 희귀품종 등에 대한 기획 전시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건물번호판 우수 설치 사례 공모전

전남도가 도로명주소 홍보와 도시미관 향상 등 건물 주인이 설치한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도를 알리기 위해 건물번호판 우수 설치 사례와 디자인 공모전을 오는 10월 15일까지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전남도를 상징하는 참신하고 창의적인 건물번호판이다. 우수 설치 분야와 디자인 분야로 구분해 개최한다. 우수설치 분야는 현재 도내 설치된 1720여개를 대상으로 시군 자체 심사 후 도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작을 결정한다. 디자인 분야는 도로명주소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전남도는 도 심사위원회와 도민 심사를 거쳐 수상

작을 결정한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최소 규격 이상으로 자유롭게 설치 가능한 건물번호판이다.

디자인 공모전 참여를 바라는 주민은 자율형 건물번호판에 대한 아이디어를 포토샵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창작물로 만들고, 전남도 누리집에서 내려 받은 서식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 결과는 11월께 발표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총 1000만원의 상금(2개 분야 32개 작품)과 함께 도지사(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 명의의 상장이 주어진다.

/윤현석 기자 chadol@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